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1월 29일(주일) 제1321호



사진은 지난해 임직식.

세상에 복음과 사랑 전할 일꾼들

2020년 임직예배 권사 206명, 안수집사 354명 임직
12월 5일 오후 4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일꾼들이 세워진다. 2020년 임직예배를 12월 5일(토) 오후 4시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드린다. 올해 임직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560명이 임직된다. 권사 206명(권사 196명, 명예권사 10명), 안수집사 354명(남 136명, 여 218명)이다.

권사 임직예정자 김정희 집사(마포공동체)는 “온누리교회 권사

로 임직되면 이전보다 교회와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더 많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안수집사 임직예정자 전경숙 성도(대전 온누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인 심리상담을 활용해서 교회와 성도들 더 잘 섬기고 싶다”고 소망했다. 또 다른 안수집사 임직예정자 박창조 성도(강남A공동체)는 “순원들이 예수님의 제자

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순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0년 임직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임직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예배에서는 정진호 장로의 대표기도, 크룩스의 축하 연주,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2부 임직식에서는 임직서약, 안수기도, 임직증 수여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1부 예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리는 예

배 상황을 각 캠퍼스로 영상중계한다. 2부 임직식은 각 캠퍼스별로 실시한다. 이날 서빙고 토요주일 2부 예배는 예약이 불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임직예배에는 임직대상자만 참석할 수 있다. 복장은 남자 검은색

정장(흰색셔츠, 여자 검은색 정장바지, 흰색 블라우스를 입어야 한다. 온누리교회 권사 및 안수집사 임직대상자들은 임직자스쿨과 개인영성 훈련(성경통독, 새벽기도, 봉사활동 등)을 모두 이수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1년 장로피택자 47명 확정

지난 11월 22일(주일) 개최된 공동의회에서 2021년 장로피택자 47명을 최종확정했다.

장로피택자 47명(명예장로 1명 포함)은 온누리교회 목회철학, 바람직한 장로상, 긍휼의 영성, 사회선교, 온누리 양육체계, 온누리 선교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는 2021 장로사관학교에서 온누리교회 장로로서의 소명과 역량을 훈련받고, 장로고시를 패스하면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장로피택자 장정렬 집사(경기A공동체)는 “교회와 공동체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겸손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훈련받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년 장로피택자

직함	명단
장로	강상훈(OCC공동체) 광병철(일산공동체) 김경학(양재공동체)
	김광훈(마포공동체) 김문갑(도곡공동체) 김상철(서초B공동체)
	김성훈(명백 온누리교회) 김영순(노원공동체) 김영옥(성북공동체)
	김영환(이촌공동체) 김우호(용산공동체) 김이준(성동광진공동체)
	김정민(서초C공동체) 김종원(인천 온누리교회) 김창석(강동 온누리교회)
	김현주(사회선교본부) 김형준(동대문중앙공동체) 김화선(서초D공동체)
	김희준(당회운영) 남윤창(찬양사역공동체) 라상원(대전 온누리교회)
	박중현(S브릿지공동체) 배승호(부천 온누리교회) 성광재(양천공동체)
	심효무(강남B공동체) 양웅(이수공동체) 양준홍(대학청년부)
	오승탁(가정사역공동체) 유봉국(대전 온누리교회) 윤수민(신용산공동체)
	이병국(회복사역본부) 이상준(강남D공동체) 이재훈(부천 온누리교회)
	이진택(남양주 온누리교회) 장정열(경기A공동체) 정영환(송파A공동체)
	정원만(2000선교본부) 정일영(인천 온누리교회) 정제범(경기A공동체)
	제무성(강촌공동체) 최형수(부천 온누리교회) 한필규(차세대사역본부)
	허경(서초A공동체) 홍갑진(북부리공동체) 황성윤(송파B공동체)
	황성룡(강남A공동체)
명예장로	이승규(OCC공동체)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본 선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드림온플러스 재팬 프로젝트 498명 참가
(Dream On+Japan)

러브소나타본부가 CGNTV와 함께 실시한 ‘드림온플러스 재팬(Dream On+Japan)’ 프로젝트 신청자가 무려 498명이다. 당초 목표한 200명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드림온플러스 재팬 프로젝트는 인터넷 기반의 CGNTV 전용수신기(셋톱박스)를 일본 교회 및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러브소나타 전도집회를 비롯한 일본 선교가 막힌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교방법이다. 러브소나타에서 결신한 성도와 협력교회, 러브소나타 실행위원회 중에서 CGNTV 전용수신기 장착을 희망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이준 집사(성동광진공동체)는 “성도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 덕분에 처음 계획보다 더 많은 CGNTV 전용수신기를 후원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성동광진공동체가 영성

이 살아있는 공동체, 마음을 모으는 일에 더욱 힘쓰는 공동체, 선교 열정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초지 카즈키 목사(야마가타현 자오그리스도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가 연기돼 매우 실망하고 있었는데 CGNTV 전용수신기를 보내준다는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다”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일본 교회에 큰 도움과 힘이 될 것”이라고 인사했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철학, 진리란 무엇인가?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철학은 진리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교의 기능은 진리의 탐구에 있다고 한다. 많은 대학들의 교훈이나 건립이념에 ‘진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세속학과 각 세계관이 말하는 진리의 정의를 비교해 봄으로써 각 세계관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다.

진리를 정의할 때는 ‘넓은 의미의 진리’와 ‘좁은 의미의 진리’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진리는 어떤 명제가 옳으면 참 혹은 진리, 옳지 않으면 거짓 혹은 비진리라고 구분할 때의 진리이다. 학교시험에서 “다음 문장 중에 옳은 것은 T(true), 옳지 않은 것은 F(false)를 표시하라”와 같은 진위 문제의 답을 고르는 것과 같다.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명제는 넓은 의미의 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좁은 의미의 진리는 단순히 참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영원토록 참인 동시에 어떤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명제를 뜻한다. 그런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명제는 참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영원한 참인가? 혹은 중

대한 의미를 함유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좁은 의미의 진리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각 종교나 세계관이 말하는 진리는 이 범주에 속해야 할 것이다. 좁은 의미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절대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불가지론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세계관마다 좁은 의미의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일신론의 종교에서는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지식의 근원이나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수렴된다. 절대자를 믿으며 그로부터 나오는 절대적인 가치인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반면 다신론의 종교에서는 다양한 신들 사이에 절대성을 비교하기 힘들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기 힘들다. 범신론에 이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의 절대성이 더욱 약해진다. 불교나 뉴에이지에서 상대주의를 택하는 것은 범신론적 세계관 때문이다.

무신론의 세계관에서는 절대자인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인본주의는 신의 자리를 이성 가진 인간이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 집단의 이성이 합의를 통해 절대 진리와 비슷한 것을 세우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필요성을 채우는 것이 진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한 인간들 안에서 진리

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한 것과 어떤 것을 절대화하기 위해서는 파시즘이나 공산당의 수용소 같은 독재와 강요가 불가피함을 경험하게 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경험을 한 인본주의자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고안한 세계관으로 진리에 대해서도 극단적 상대주의의 태도를 취한다.

우리의 근대적인 공교육에 영향을 미친 일본과 미국의 공교육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의 공교육은 명치유신 이래 국가에 충성하고, 천황에게 충성할 것을 교육하는 ‘황국신민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공교육 역시 1930년대부터 존 듀이와 같은 인본주의 교육철학자들의 주도로 국가유지에 필요한 국민을 양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의 공교육 역시 국민교육헌장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민족중흥을 이룰 국민교육이 목표이지 진리의 추구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공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국가에 필요한 국민, 직업인 혹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상식과 정보이다. 이는 사회를 살아가고 직업을 얻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진리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은 아니다. 즉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이치에 닿는 일리(一理) 있는 정보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처음 접한 정보를 나의 세계관에 편입시키기 전 에 그것을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그 정보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주장을 충분히 비교검토해

서 정보를 지식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또 그 지식이 진리의 지위를 획득하려면 통전적인 성경의 메시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은 이런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친 진리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학교에서 세속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탐구한다고 말한다. 이런 이유로 존경받는 선생님의 말이나 위인이나 대학자 등 권위자의 가르침을 쉽게 나의 진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유명인이 하는 말이나 SNS에 떠도는 말도 쉽게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것 같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는 말씀으로 자신이 유일한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셨다.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진리는 정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닌 우리 존재의 목적,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한 빌라도처럼 되지 않기 위해 진리를 향한 눈을 항상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예수 외에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묵상: 유일한 길 **예수를 주장하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는 세상의 비난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잘못된 체면문화를 깨뜨려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만 친절맨인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남편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합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전에는 안면 있는 앞집 아기 엄마가 자기 집에 바퀴벌레가 많이라며 잡아달라고 하자 정말 열심히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부탁을 하면 “그건 네가 해”라고 말합니다. 성격이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다가가도 부인인 저한테는 막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에는 너무 잘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기가 막힐 일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늘 친절하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고 부탁을 다 들어주는 남편들이 있다. 그러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아내에게는 불친절하고 아니 무심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이런 남편의 아내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새까맣게 타 들어갈 것이다. 아내에게 무심하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친절하 남편도 문제지만,

이것이 성격차이인줄 알고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문제다. 이것은 성격차이가 아니다. 잘못된 한국의 남성 문화, 즉 체면문화의 영향력이다.

체면문화는 남을 존중하고 남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아니다. 남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늘 신경을 곤두세우며 늘 자기 가족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문화다. 어떻게 보면 남을 우선 배려한다는 그럴듯한 구실이 있지만, 문제는 그 친절을 아내나 가족에게는 절대 베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느 자매가 내게 이런 호소를 보내왔다. “남편이 차를 산지가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내인 저를 위해서 자리 한 번을 배려해준 적이 없어요. 항상 운전석 옆자리는 아들이 차지했고, 어쩌다 둘이 탈 때도 옆 좌석에 보지 않는 책을 수북이 쌓아놓고 치위줄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늘 뒷좌석으로 가게 하면서 어쩌다 다른 사람이 타게 되면 쯤썩게 치워주는 거예요. 그런 일로 기분 나빠하는 저에게 남편은 남이니가 배려한다나요?”

이 같은 상황은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체면문화이다. 자기 가족은 등한시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아내들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남편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내의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자신에게만큼은 자상하게 배려해줬으면 하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 전혀 모르는 남보다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의외로 많다. 남편들의 마음 속에 ‘내 마누라니까’라고 너무 가볍게 대하는 습관이 배어있는 것 같다. 가족들하고 밥 먹다말고 친구가 전화하면 벌떡 일어나 나가 버리는 남편이나 아버지들이 친구들에게는 인기가 좋을지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어느 지방의 부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집에 조금 일찍 들어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놀아달라는 아들의 말은 아예 못들은 척하고, 아내에게 딱 세 마디 했습니다. “아 피곤해. 밥 줘. 내일

일찍 깨워줘”라고요. 그러고는 밥을 먹고 잠을 청하는데 청년부 소속 형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벌떡 일어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저를 바라보던 아내와 아이들의 어두운 표정이 기억납니다.”

이것이 바로 체면문화의 잔재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체면문화는 깨뜨려야 하지 않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에게 더욱 친절할 때 그 친절이 빛이 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을 더욱 배려할 때 그 배려가 더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느헤미야의 영적 지도력으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한 영적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12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전 국가적인 회복과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체험과 부흥 이후 무너진 거룩한 영적 성벽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가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에 감사하고,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아직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에게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체류한 시간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되었지만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불타 무너진 것보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동안 영적 성벽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적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습관,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습관이 무너지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대부흥 직후 침체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갱신과 부흥 직후 찾아오는 침체가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부흥과 갱신을 허락하시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새롭고, 변화되는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입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을 참지 못해서 산 아래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이 있었던 해가 1735년입니다. 대각성운동의 불씨가 되고 중심 역할을 한 곳이 보스턴의 노스햄튼교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가 성령의 충만하고 강력한 역사로 회중에게 놀라운 회개가 일어나고, 그 불길이 미국 전역에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에서 5년 뒤인 1740년 담임목사 조나단 에드워드를 해고했습니다. 해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가운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한 직분자를 권직했다는 것이 해고 이유였습니다. 학자들은 그 권직이 합당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담임목사를 회중들이 힘을 합쳐서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년 전에 그 놀라운 대각성운동의 불씨가 되었던 바로 그 회중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배역한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적 부흥과 갱신이 일어난 직후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이 영적 성벽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방법은 겉으로 볼 때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자고 합니다. 그것이 신앙처럼 보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광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이성으로 따져보자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철저해 보이고, 더욱 열심히 보이는 것들이 율법주의, 광신주의, 회의주의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 좋게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는 타협과 평화주의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와 같아서 끊임없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스며드는 것을 막고 파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사탄은 재빨리 뒤에서 그 부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느헤미야 13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와 부흥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한 백성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책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는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책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문제점

첫째, 부패한 제사장들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던 도비야에게 하나님의 집 창고를 내어 줬습니다. 하나님의 집 창고는 필요한 기구들과 곡

식, 제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도비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고를 쓰라고 내어준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합당한 값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모두 흩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여러 상인들이 장사를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온갖 종류의 물건들을 안식일에 팔았습니다. 유다 귀족들이 안식일을 모독하고, 허용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깨뜨리고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자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분노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에게 내 준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서 모든 기구들을 밖으로 내던져 버리고, 지도자들을 꾸짖고 경고하고 교훈합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된 일이요?’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11절).

또한 안식일을 범하는 귀족들은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거나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에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소’”(17~18절).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에게는 더 크게 진노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오게 하지도 말라’”(25절).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 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27절).

열매 맺는 거룩한 분노

느헤미야의 분노를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

이 신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엎으시며 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팔던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팔았습니다. 흠이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해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확인하고 판단하는데 무조건 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판매하는 제물을 사면 흠이 있어도 없다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니 누가 합당한 물건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엄청난 비리와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엎으신 것입니다. 성전 제물로 인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뒤집어엎으신 것입니다. 또 모든 상인들이 내야 할 성전세를 환전하는 일을 만들어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비리와 부정을 일삼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엎으시며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거룩한 분노처럼 느헤미야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뿌리 깊은 죄악은 거룩한 분노에서 나오는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좀처럼 교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상황을 넘기고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에서 이탈해서 자신의 죄성과 연합하면 분노만 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로운 분노는 언제나 불의를 고치고, 죄악을 끊습니다. 자기 분풀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분노입니다. 느헤미야의 분노는 열매 맺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는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거룩한 기도가 함께 나옵니다. 그가 분노한 이후 기도를 한 구절씩 적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하며 개혁을 이루는 한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의 분노가 열매 맺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 분노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 없는 분노는 자기 의에 빠지기 쉽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판단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가 열매 맺는 것은 이 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14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책망하고, 개혁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면에 계속)

‘언택트 시대’ 도래했는데...

농어촌 미자립교회 비대면 신앙생활 실태조사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참으로 많이 바꿨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마스크 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낯설기만 했던 일상들이 제법 익숙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언택트(Untact)’ 시대가 왔다. 언택트는 Un(부정의 접두어)과 tact(접촉하다)가 합쳐진 신조어다.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비대면 생활(문화)을 뜻한다. 교회에도 비대면 신앙생활이 어느덧 자리 잡고 있다. 온라인 영상예배, 온라인 순예배와 기도회, 온라인 양육과 집회까지 거의 모든 신앙생활을 비대면으로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 신앙생활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은 사정이 어떨까? 비대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을까? 본지에서 사회선교부 농어촌선교팀의 도움을 받아 ‘전국 농어촌 미자립교회 비대면 신앙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창이던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온라인(구글 설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농어촌선교팀이 후원하거나 협력하고 있는 101개 농어촌 미자립교회(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가 참여했고, 결측치를 제외한 98개 교회의 응답을 분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들도 도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또한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주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비대면 신앙생활 실태조사 결과,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비대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비대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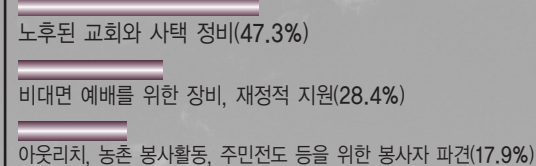
첫째, 목회자와 성도들의 연령이 많고, 성도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담임목사 연령대 평균이 50~60대였다. 50대가 62.6%, 60대가 23.2%를 차지했다. 성도들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성도 평균 연령대가 60대 이상이었다. 70대 50%, 60대 22.4%, 80대 14.3% 순이었다. 60대 이상 성도가 전체 교인의 8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98개 농어촌 미자립교회 중에서 72%가 성도 20명 이내의 소규모 교회였다. 등록성도가 20명 이하인 교회 41%, 10명 이하인 교회 31% 순이었다. 고령화 되고, 소규모 교회에서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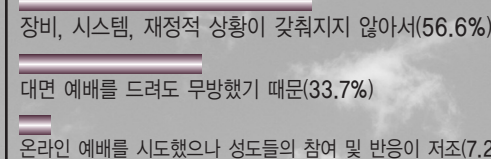
둘째, 농어촌미자립교회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등의 여파로 성도들이 대면 및 접촉을 피하면서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더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98개 농어촌 미자립교회 75.5%가 출석 성도가 더 줄었다고 했다. ‘다소 줄었다’가 51%, ‘절반가량 줄었다’가 15.3%, ‘매우 많이 줄었다’가 9.2% 등의 순이었다. 안 그래도 소규모 교회인데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이 더 줄어들면서 비대면 신앙생활의 주체가 될 성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비대면 콘텐츠를 따로 제작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셋째, 코로나19로 출석 성도 수가 줄어들면서 교회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은 안 그래도 교회 재정상황이 어려운데 코로나19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성도들이 교회를 찾지 않으면서 교회수입에도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코

농어촌 교회에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



대면예배를 고수하는 이유



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교회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6%를 차지했다. ‘소폭 줄었다’ 43.9%, ‘절반가량 줄었다’ 23.5%, ‘상당히 많이 줄었다’ 14.3% 순이었다. 성도들이 교회 출석을 안 하니가 헌금이 전혀 없는 교회도 한 곳 있었고, 목회자 가정만 헌금하고 다른 성도들은 헌금을 하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 교회의 재정상황 악화는 비대면 신앙생활 환경조성에 들어갈 예산이 없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비대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다.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호소 “특별한 대책 내놓기 어렵다”

그렇다면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의 비대면 예배(온라인 예배) 실태는 어떨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질문에 98개 농어촌 미자립교회 중에서 불과 13개(13%) 교회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이었는데도 대다수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었다. 아니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온라인 예배를 할 정도의 장비, 시스템, 재정적 상황이 갖춰지지 않아서’가 5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대면 예배를 드려도 무방했기 때문’ 33.7%, ‘온라인 예배를 시도했으나 성도들의 참여 및 반응이 저조’가 7.2%, ‘온라인 예배 방법을 몰라서’ 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언제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 또다시 비대면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들 교회 스스로는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기 어렵다. 비대면 시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울 방법이 시급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개인위생 및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답했다.

물론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비대면 신앙생활 방법을 찾고 있다. 예배 자료 및 녹음 파일을 전달해서 성도들이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구역별 및 가정심방예배 강화, 토요일에 말씀과 요약본을 나눠 주고 주일에 전화로 드리는 예배,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방법 등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안으로는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설교문을 프린트해서 드려봤는데 한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많다”, “목사 혼자 모든 일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도들의 가정에 컴퓨터가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게 어렵다” 등의 호소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렇다고 농어촌 미자립교회들이 마냥 손 놓고 있지 않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성도들의 비대면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가정심방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재무장시키고, 관계 전도에 더욱 힘써서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는 교회,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교육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기숙형학교를 통해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려는 교회 등이 있다.

심리 및 복지 지원, 재정지원, 기도와 관심은 생명수

도시 교회가 나서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도와야 한다. 고령화되고, 디지털 인프라(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보급 등)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우선 심리적 도움이 필요하다. 코로나 블루(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우울증) 등 심리적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교회가 무려 30%에 달한다.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원하는 심리적 지원은 교제활동이 56.7%로 가장 많았고, 심리교육 19.4%, 심리치료와 집단상담 12.9%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복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방역용품(위생용품, 마스크, 세정제) 지원과 말벗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40.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식료품 지원 37.5%, 정서적 복지 지원 17.2%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또 ‘농어촌 교회에 실제로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47.3% 교회가 ‘노후된 교회와 사택 정비’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비대면 예배 장비와 재정 지원’ 28.4%, ‘아웃리치, 농촌 봉사활동’ 17.9% 등의 순이었다. ‘전도물품 지원’과 ‘매월 정기적인 후원’이라는 소수 응답도 있었다.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어느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농촌 교회는 도시 교회의 못자리입니다. 농촌 교회 출신들이 도시 교회에 나가서 귀한 직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향 교회를 살리는 마음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관심 가져 주십시오. 도시 교회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 후원과 중보기도가 고사 위기에 놓인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살리는 생명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했는데, 농어촌 미자립교회의 어려움을 알려주시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노력해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가 어느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의 말에 화답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온누리교회는 언제나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함께 할 것입니다. 작은 힘이나마 끝까지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구촌 이웃을 섬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

NGO 더멋진세상 후원, 재능기부, 중보기도

NGO 더멋진세상같은 비영리기관은 후원없이 운영할 수 없다. 후원에 죽고 후원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0년 동안 동일본 대지진 피해 현장, 네팔 지진피해 현장 등 수없이 많은 재난지역과 가난한 이웃들이 사는 지역을 찾아가 섬길 수 있었던 것도 후원자들의 후원, 재능기부, 중보기도 덕분이다.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아이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죽어가던 산모들의 생명을 살린 일도 마찬가지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후원자 김상욱 대표, 재능기부자 노정숙 성도(서초C공동체), 중보기도자 이경숙 권사(가정사역공동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발효식품기업 '진락' 김상욱 대표의 후원

NGO 더멋진세상은 네팔 HIV감염 아동들에게 영양제를 후원해주고 있다. HIV에 감염된 아동들은 면역수치가 낮아지면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지원하는 영양제에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섭취하기 힘든 7개 비타민과 면역력 향상에 좋은 홍삼추출물이 포함되어 있다. 6년째 바이오 발효식품기업 '진락' 김상욱 대표가 이 영양제를 후원해준 덕분이다.

“HIV 보균자는 면역단백질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서 발병하거나 에이즈 치료제가 쇼크를 줄 수 있습니다. 홍삼이 면역수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쓴맛 때문에 영양제에 홍삼 함량을 많이 높이지는 못하는데 이를 보완해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맛있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더 많이 전달하고 싶습니다.”

발효식품기업 진락과 김상욱 대표에게 NGO 더멋진세상 후원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후원하고 있는 그 자체가 큰 은혜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유익이 많았다. 네팔 HIV감염 아동들에게 영양제를 후원하면서 중단되었던 에이즈 치료보조 사업이 활성화 됐다.

“아프리카권을 대상으로 에이즈 환자를 위한 보조식품을 개발하다가 중단된 상태였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김상욱 대표, 노정숙 성도, 이경숙 권사(왼쪽부터).

데 한 선교사님의 소개로 네팔 HIV감염 아동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차곡차곡 활용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모든 것을 드린 과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발효식품기업 진락의 시설을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촌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노정숙 성도의 재능기부

여성고 산모들의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키는 모자보건사업은 NGO 더멋진세상의 핵심사업이다. 산부인과 의사인 노정숙 성도(서초C공동체)는 매년 NGO 더멋진세상의 사업지역을 찾아가 여성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처음에는 매년 가던 의료 아웃리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

까 여성들의 건강이 말도 못 할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NGO 더멋진세상은 작은 관심과 변화만으로도 선교지 여성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노정숙 성도의 제안 덕분이었다. 노정숙 성도가 NGO 더멋진세상에 속옷과 생리대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에서 속옷과 면생리대 제작 및 보급하는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일하느라 소변 볼 시간조차 없는 여성들을 위해 화장실을 설치해주고 제안했다. NGO 더멋진세상이 노정숙 성도의 제안을 사업에 적극 반영했고, 그 결과 그 지역 여성들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노정숙 성도가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이유가 있다. 변하지 않는 꾸준함 때문이다.

“주민들이 온전히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돕는 NGO 더멋진세상의 사업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달라도 무엇인가 다릅니다.”

중보기도 후원자 이경숙 권사

선교지에서 비지땀 흘리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 파송 선교사들에게 중보기도만큼 든든한 것이 없다. 이경숙 권사(가정사역공동체)는 8년째 ‘더멋진세상 마리아 기도모임’을 이끌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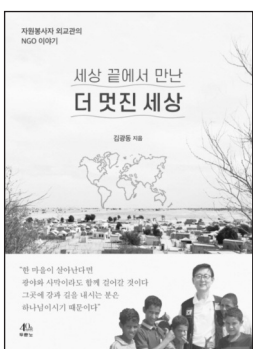
“별써 NGO 더멋진세상을 위한 기도모임을 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에 관심이 있는 정도였는데, 중보기도모임을 섬기면서 NGO 더멋진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NGO 더멋진세상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더멋진세상 마리아 기도모임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NGO 더멋진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성도들이 모여 무릎 꿇고 있다. 더멋진세상 마리아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끼리 헌금을 모아 NGO 더멋진세상이 실시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하기도 한다.

“저희들은 NGO 더멋진세상 사역지 뉴스가 전해지면 함께 기도합니다. 관심도 없었던 나라와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외교관 출신 봉사자 무보수로 세상 섬긴 10년 이야기

‘NGO 더멋진세상’ 김광동 대표



국제구호개발은 세상의 끝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다. 바다 위 뱃산과도 비슷하다. 눈에 띄는 10%는 식수 교육 보건 환경 개선 등의 NGO 사역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90%는 지구촌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일이다. 선교와 떼어 놓을 수 없다.

국제 NGO 더멋진세상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김광동(72) 대표의 사역이야기를 책으로 펴낸다. ‘세상 끝에서 만난 더 멋진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원봉사자 외교관의 NGO 이야기’란 부제가 달렸다. 주홍콩 총영사, 주브라질 대사 등 38년 외교관 경력의 김 대표가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의 강권으로 퇴임 후 NGO 더멋진세상을 창립해 무보수로

10년간 세상을 섬겨 온 이야기가 펼쳐진다.

온누리교회 장로인 김 대표는 19일 “외교관으로 해외를 오갈 때 넓은 좌석에 앉아 긴 다리를 펼 때 는 몰랐는데, 최근 10년은 무릎을 구부린 채 폭이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자니 처음엔 정말 고역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는 즐거움을 안다”면서 “20-30시간 비행을 견디면 아프리카 어느 마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선물할 수 있고, 14시간을 견디면 서남아 어느 학교에 컴퓨터를 보낼 수 있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라고 전했다.

책의 표지는 모리타니의 마을 모습이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열악한 서부 이슬람권의 모래밭 한

가운데 있는 곳으로 ‘여기가 세상의 끝이구나’란 생각이 든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런 곳에 들어가 더 멋진 마을을 조성한다. 학교를 짓고 농업 개발을 하고 삶의 희망을 전한다. 그다음 현지 성도의 집을 리모델링해 가정교회 형태로 선교가 시작되도록 돕는다. 긴급구호를 통해서도 재해로 폐허가 된 지역을 복구해 복음이 들어가도록 노력한다.

책에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긴급구호부터 시작해 사막 위에서 마을 기틀을 다진 기니 비사우와 세네갈, 천혜의 자연환경과는 대조적으로 복음화율이 극히 저조한 네팔, 전쟁 난민들이 떠도는 시리아와 남수단 등에서의 사역이야기가 이어진다.

김 대표는 “현재 지구촌 24개국 27개 마을에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고 있으며, 긴급구호가 있었거나 프로젝트가 종료된 나라를 합치면 총 37개국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이 기사는 국민일보 11월 20일자 신문 31면에서 전 재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친구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

좋은 어른을 만나야 좋은 어른이 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꼭 만나야 할 좋은 어른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다. 인생을 계획하고 다듬어가는 청소년 시기는 더욱 그렇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이들이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다. 그런데 수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좋은 어른보다는 못한 어른들을 만나고 있다.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꼭 만나야 할 좋은 어른들이 있다.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하 자립지원관)'과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서유진 변호사(사단법인 '나눔과 이음')가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오빠 집으로 가자.”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프랭키 프렌즈에서 ‘위험한 선택을 하는 가출 소녀, 당신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사회 실험 영상을 게재했다. 한 카페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성인 남성에게 성매매를 제안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성인 남성이 잠시 자리를 뜨자 젊은 여성이 청소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언니가 뒤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나쁜 일인 것 같거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면 언니가 줄게. 언니랑 나가자”며 청소년을 데리고 나왔다. 뒤따라 나온 성인 남성이 “언니와 이야기 해보고 결정하리”며 언성을 높이자 젊은 여성이 청소년과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도 많아. 네가 저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어.”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청소년이 “남성을 따라가지 않겠다”며 성매매를 거절했다. 그 젊은 여성이 청소년을 도와준 바로 그 좋은 어른이었다.

더 이상 위기의 회전문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도록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 불리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여자 청소년들의 경우 성범죄에 빠지기 쉽고, 남자 청소년들은 폭력이나 절도 등의 범죄에 휘말리기도 한다. 꼭 범죄가 아니더라도 당장 잡잘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들도 많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좋은 어른들이 그래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쉼터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청소년 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제로 가정 밖,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아이들을 돕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 준비 등 학업적인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직업체험, 문화체험 등도 시켜준다.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한 숙소도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

이 있다. 청소년 쉼터의 경우 보통 만 19세 이상이 되면 퇴소를 한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남자 청소년 쉼터의 경우 직장이나 군대를 가기 위해서 또는 자유롭게 생활하고자 퇴소를 한다. 그렇게 퇴소하는 쉼터 퇴소 청소년들은 자립 준비가 부족한 채 사회로 나가게 된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이하 하나로 쉼터)에서 생활하던 김영광 형제(가명)도 쉼터 퇴소 이후 죽고 싶을만큼 힘들었다고 털어냈다.

“하나로 쉼터에서 퇴소하고 세상에 나오자마자 막막하더라고요. 지낼 곳도 없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일하면서 고시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노숙생활도 했고요. 벼랑 끝까지 몰린 상황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형근 관장(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하나로 쉼터 퇴소 후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가는 청소년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기도했다. 그 고민과 기도 끝에 지난해 8월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자립지원관이 문을 열었다.

“스무 살이 되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사유로 쉼터에서 퇴소하게 됩니다. 아직 자립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채로 홀로서기에 직면합니다.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마주한 현실과 절실함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더 이상 위기의 회전문에서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도록 하려고 자립지원관을 개관했습니다.”

자립지원관은 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있다. 거주지 월세 지원은 물론이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자립지원교육, 심리·정서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1년 동안 50여 명의 쉼터 퇴소 청소년들에게 1,457개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한 명이 8~12명의 가정 밖 청소년을 담당한다. 자립지원전담요원들

은 가정의 보호와 돌봄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부모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 도움을 주고 있다. 김영광 형제도 자립지원관의 도움을 받아 지난 17일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자립지원관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 삶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일들을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늘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어른들 '자립지원관'과 '나눔과 이음'

자립지원관에는 좋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더 좋은 어른이 된 자립지원전담요원도 있다. 박희정 사회복지사(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가 그 주인공이다. 박희정 사회복지사는 학창시절 하나로 쉼터에서 생활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레 찾아온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뒀다. 한동안 집에서 틀어박혀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하나로 쉼터를 알게 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과 마음이 날로 좋아졌다.

“하나로 쉼터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업을 포기했던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도록 소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박희정 사회복지사는 하나로 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다시 꿈을 키워갔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하나로 쉼터에서 받은 사랑을 다른 청소년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박희정 사회복지사는 올해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 배치됐다.

“하나로 쉼터에 계셨던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

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외투를 건네주고 봄이 오기를 함께 기다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더 좋은 어른들이 또 있다. 법무법인(유)세종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이다. 나눔과 이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 받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공익변호활동 단체다. 탈북민, 노숙인, 아동·청소년, 독거노인 등을 섬기고 있다. 올해 초 공익변호활동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립지원관과 연이 닿았다.

나눔과 이음에서 자립지원관을 전담하고 있는 서유진 변호사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법률교육, 진로체험, 소송지원, 법률자문 등을 해 주고 있다. 서유진 변호사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정과 입장, 마음 등을 전달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

서유진 변호사는 지난 10월 소송에 걸린 자립지원관 청소년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기도 했다. 탄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합의를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접견을 위해 서울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수십 번을 왕복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혼자 견뎌내고 있을 가정 밖 청소년을 생각하면 가만 있을 수 없었다. 온 힘을 다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녔다. 비록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서유진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그 가정 밖 청소년이 크게 감동했다.

“쑥스러워 말은 못했지만 변호사님을 만나 참 감사하고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다 잘 될 거라는 응원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서유진 변호사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집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집은 ‘내가 나로서 존재하면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집과 같은 어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고 따뜻한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김형근 관장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청소년 시절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곤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좋은 어른을 만나야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좋은 어른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좋은 어른들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요. 자립지원관을 방문해서 만나주셔도 좋고,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후원과 선물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는 기도와 따뜻한 관심이 늘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시요.”

문의: 031-360-1824

전문가 기고

헌금을 드리는 올바른 태도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예배당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다. 몇몇 교회에서는 주일헌금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왜 이

런 일이 생겼을까? 부득이하게 교회에 못가더라도, 예배를 못드리더라도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낼 수 있는데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주일헌금, 십일조 등을 미리 헌금봉투에 따로 떼어서 준비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일상화되었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헌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헌금을 미리 준비할 여유가 없고, 혹여나 미리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교회에 나가게 되면 한꺼번에 드려야지’ 하는 생각에 준비한 헌금이 여기저기 다른 비용으로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은 것 같다. 돈은 갖고 있으면 어떻게든 쓸 일이 생긴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마음 깊은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막 14:3-9).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헌금하기 위해 지폐를 다리미로 다려서 드렸더라, 누구는 은행에서 신권으로 바꿔서 헌금했다 등의 이야기들이다. 온라인 헌금과 자동이체가 가능한 지금 시대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린 여인을 책망하던 당시

어떤 사람들처럼 말이다.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건, 그냥 병째로 드리건, 삼백 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서 돈으로 드리건 그것은 예수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매우 값진 향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인은 자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것으로 예수님께 정성껏 드렸을 것이다. 그 여인도 향유를 팔면 당시 노동자나 군인의 300일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다. 아니, 계산하

다른 하나는 금액을 떠나서 기부하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의견이다. 우리의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 자산 100억 원과 2억 원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사람이 헌금을 똑같이 1억씩 했다고 치자. 100억 가진 사람은 자산의 1%를 기부한 것이고, 2억 가진 사람은 자산의 50%를 기부했다. 너무 단위가 커서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가? 그렇다면 100만 원과 2만 원 가진 사람이 각각 1만 원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막 12:44).

예수님은 헌금의 절대 금액이 아닌 상대적인 금액 즉, 자산대비 헌금의 비율을 보신 것이다. 얼마를 드렸냐를 보신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얼마를 남겼느냐를 보신 것이다.

위의 말씀에서 지나치기 쉬운 구절이 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이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헌금을 모두 동전으로 바꾸어서 헌금함에 던졌다고 한다. 지폐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동전을 넣게 되면 동전끼리 부딪치면서 헌금함 바닥에 닿을 때 큰소리가 난다. 자신들의 헌금 생활을 드러내기 위해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얼마를 남기고 헌금하는지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그 헌금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게 드렸는지도 보신다.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고, 내가 하는 의롭고 착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금도, 구제도, 기도도 티 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니 아까운 마음이 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부모님께 정기적인 용돈과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수입이 넉넉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릴 것이고, 재정적으로 힘이 들 때는 아까운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아까운 마음이 들 바에야 차라리 용돈을 안 드리는 게 낫겠다고 마음먹고 드리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매월 용돈을 받을 무렵 여러분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순종하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하라하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돈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깨우친다면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돈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깨우치면 기쁘고 즐겁게 헌금할 수 있다.

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뭔가 반대급부를 바라는 공경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여인의 중심, 마음 깊은 내면을 보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과부의 두 렵돈의 가치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막 12:41-43).

고액자산가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같은 유명인들이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 가지 태도를 보인다. 하나는 가지고 있는 자산과 연봉이 얼마인데 고작 그것밖에 기부를 안 하느냐는 부정적 시각이고, 또

씩 기부했다고 치자. 100만 원 가진 사람 입장에서 1만 원은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전 재산 2만 원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1만 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다.

과부가 드렸던 두 렵돈 즉, 한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다. 고드란트는 앗사리온의 4분의 1이고, 앗사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한다. 계산해보면 64 고드란트가 1 데나리온이 된다.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하루 일당이 원화로 128,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천 원)은 적은 돈이지만,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신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부자가 금액적으로 훨씬 많은 돈을 헌금했을 거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고 하셨다. 왜일까? 그 이유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있다.



코로나19, '비대면 사역'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누리M미션 비대면 사역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주민 사역 현장이 얼어붙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사업장 폐쇄를 우려한 이주민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누리M미션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배와 전도, 양육 등에 비대면 사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시도는 이주민들을 위한 추석연합집회 '하베스트'다. 하베스트 집회를 17개 언어로 더빙해서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하베스트는 온누리M미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다. 크리스천 이주민들에게는 은혜를 선물하고, 넌크리스천 이주민들에게는 전도의 장이 되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에 친구 따라 왔다가 복음을 얻어가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하베스트 집회는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약 1만을 달성했다. VR(virtual reality)과 AR(augmented reality) 기술을 도입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재미까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온누리M미션은 2021년 2월 열리는 러시아권 연합집회 '러스타'에서도 유튜브와 줌(ZOOM)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전 세계 러시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꿈을 꾸고 있다.

만날 수 없다고 손 놓을 수는 없다!



온누리M미션 이광수 선교사가 제작한 전도지 <클릭전도>를 전도대상자들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내년 2월 막 오르는 러스타 집회에서는 국내 러시아 교회, 이스라엘, 미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본토 교회들과 2박3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이주민 전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주민들을 만날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광수 선교사(평택M센터)가 제작한 전도소책자 <클릭

전도>와 그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한 '모자이크 메시지(Mosaic Message)'가 이주민들을 전도하는 데 맹활약하고 있다.

<클릭전도>는 '흔적(성경과 교회)', '우연히(창조)', '응답(기도응답)', '유일한 길(예수)'을 제목으로 구성된 4권의 소책자다. 한국어와 영어로 표기되어 있다. 산뜻한 디자인과 전도대상자를 배려한 문체가 특징이다. 평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웃에게 배송하거나 선

물하면 된다. <클릭전도>는 두란노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대구 동신교회에서는 <클릭전도> 2천 권을 전도대상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모자이크 메시지'는 유튜브 채널 'Mosaic Message'에서 볼 수 있다. 스페인어, 베트남어, 태국어, 네덜어, 아랍어, 필리핀어, 영어, 한국어, 러시아어, 이란어, 우즈베키스탄어, 중국어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광수 선교사는 “만나기 어렵다고 전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전도대상자들에게 <클릭전도>를 선물한다면 전도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누리M미션은 내년 말씀과 성경에 집중할 예정이다. FCBH의 오디오 성경 듣기, 줌(ZOOM)을 활용한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온라인 성경 암송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규석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질수록 예배와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이주민 성도들이 많다”면서 “이주민들과 온누리M미션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 '성경필사'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셉청년부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 간증

성경필사의 유익에 대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요셉청년부 웹주보에 올라온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 공지를 보고 곧바로 참여하고 싶었다.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룯기 말씀이 떠올랐다. 나의 아버지는 첫 딸의 이름에 '룯'이 들어갔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계셨고, 그 소원대로 나의 이름에 '룯(Ruth)'이 들어가 있다.

나는 룯처럼 본국이 아닌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께 룯기를 필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며 한국어가 편하지 않으니 영어로 필사해도 되냐고 여쭙보았다. 목사님은 영어와 한국어 둘 다 필사해보라는 도전을 주셨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큰 부담이 있었다. 실수 없이 필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너무 긴장 되서 필사를 계속 미뤘다. 가족 행사를 위해 고향 방문을 앞두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필사를 시작했다. 다행히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필사를 완성했다. 몇 가지 실수들이 있어서 마음에 걸렸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본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필사본을 교회에 제출했다.

고향으로 돌아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면서 마음에 걸린 실수들이 떠올랐다. 한 번 더 필사를 해보기로 작정했다. 두 번째 룯기 필사는 말씀을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외우는 것



캐린 자매(요셉청년부)가 성경 '룯기'를 필사하고 있다.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룯은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는 것을 선택했다. 사랑은 선택을 요구한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무 것입니다”

(룯 1:16).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던 이유는 부모님의 금혼식(결혼 50주년 기념식)때문이었다. 부모님은 결혼식 당시 전통대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어머니께 찬송가를, 어머니는 아버지께 성경책을 선물하셨다. 어머니가 선물한 성경책을 펼쳐보았다. 룯기 1장 16절 말씀이 그 성경책 앞에 적혀 있

었다. 어머니가 성경책을 아버지께 선물하면서 적은 말씀이 룯기 1장 16절 말씀이었다. 소름끼치는 순간이었다.

룯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결정해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다. 모압 사람이던 룯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재혼할 기회를 버리는 결정이다. 어쩌면 룯은 여자로서의 미래를 포기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예수님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룯을 택하셨고, 룯은 사랑과 순종을 선택했다. 그래서 룯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험이었다. 룯이란 이름은 '친구, 동반자,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다. 룯기 필사를 하면서 룯이 어떤 사람인지 더욱 깨닫고 도전을 받았다. 내 이름에도 있는 '룯'이 성경 속 룯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씨를 담고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룯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내 인생 최초의 필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기회였고, 그 과정은 은혜의 시간이었다. 필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았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캐린 자매(요셉청년부)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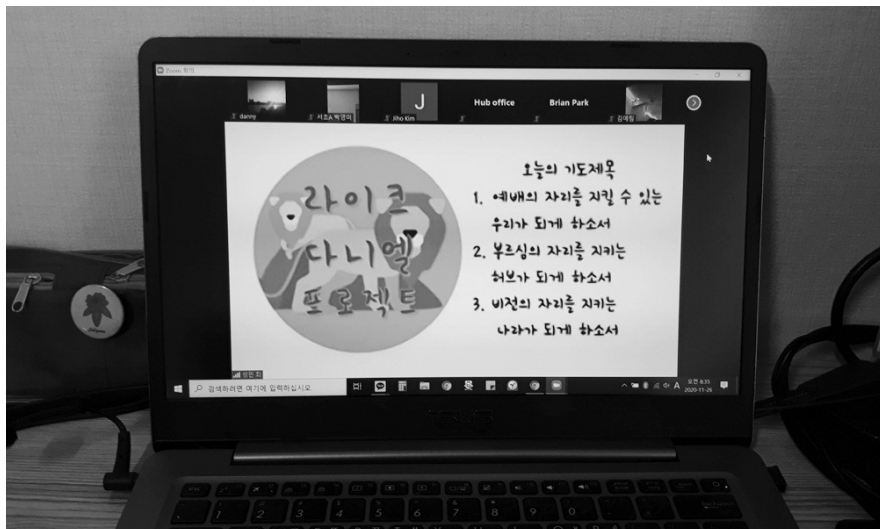
허브대학부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

나는 모태신앙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신앙은 결코 내 신앙이 아니었다.

스무 살, 타지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적으로 방향을 많이 했다. 신앙 대신 대외활동, 학업, 대인관계 등으로 내 삶을 채워가고자 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워지지 않는 감정이 하나 있었다. 바로 공허함이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 주도권은 오롯이 세상에 있었다. 나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기 바빴고, 성과에 상관없이 공허함을 떨쳐낼 수 없었다.

몇 해 전 건강을 잃고 좌절했다. 회복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작은 움직임에도 가시 같은 통증이 나를 괴롭혔다. 크게 좌절하고, 초라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 하나님은 지쳐있던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손을 잡아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나를 훈련시키셨다.

하나님은 내가 신앙 안에서 삶의 목적을 세워가도록 알려주고 계시다.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이하 다니엘 기도회)는 바로 그 훈련 중 하나이다. 다니엘 기도회는 11



허브대학부가 하루 세 번(오전 8시 30분, 오후 12시 30분, 밤 10시 30분) 15분씩 '라이크 다니엘 프로젝트' 기도회를 하고 있다.

월 한 달 동안 하루 세 번(오전 8시 30분, 오후 12시 30분, 밤 10시 30분), 15분 동안 기도한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하지 못했던 나의 하루 세 번 기도를 공동체 기도회를 통해 이끌어주셨다. 그 시간을 다른 우선순위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다니엘이 왜 기도 시간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는지 느끼

그 손길에 힘입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된다. 타인을 향한 기도가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이다.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과의 필연적인 만남이다. 고통 받는 이에게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자리이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에게는 용기를 허락해주시는 자리이다. 우리 삶 구석구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손을 내밀고 계신다. 그 손길에 힘입어 기도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는다. 여러 청년들이 결단하고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는다.

늘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한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갈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습 3:17).

/ 김다니엘 형제(허브대학부)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공예배와 소모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도들의 개인 영성관리를 위해 교회에서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특히 담임목사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OBC 로마서 과정이 더욱 설레고 기대되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은 참으로 은혜로운 과정이었다. 매주 해당 부분의 성경을 미리 읽고, 교안을 참조하며 강의를 듣고,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공동체 목사님으로부터 과제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분명히 깨닫는 복음의 진리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을 수강하면서 보다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의 학습목적은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에 담긴 진리의 틀과 복음의 구성요소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바울의 선교적 삶을 배우는 것이다. 또 다문화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강의 내용 중에 기억 남는 것이 있다. 과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다. 그들



한상경 성도(대전 온누리교회)가 온라인 OBC 로마서 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했다. 그럴수록 그들은 더욱 위선하게 되었다. 사실 나의 모습 또한 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 같다. 나는 많은 예배에 참석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다. 가능한 많은 양육과정에 참석해서 은혜 없이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읽었다. 여러 헌금을 하면서 겉으로는 꽤 신실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참으로 미숙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죄인 됨을 고백하게 된다. 내 안에 선한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을 행할 수 없도록 막는 악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도 바울처럼 늘 고민하고, 구원의 확신을 찾고 구하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쉬 없이 활동하시는 진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믿음 아닌 행위로 의를 추구하고, 그로 인해

실족하고 있지 않은지도 돌아보았다.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거나 사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누가 이 선한 행실과 노고를 알아봐 주고, 칭찬해 주기를 은근히 바라며,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던 너무 부끄러운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의에 무지했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살아가야겠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자신이 로마에 왜 가야 하는지,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매우 귀한 서신이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가고자 했고, 로마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한참 부족하고 무지한 내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선교적 삶에 대해 깨닫고, 선교적 교회를 꿈꾸게 되었다. 그 길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드린다.

/ 한상경 성도(대전 온누리교회)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꼭 봐야 할 영화 '언플랜드'

더 시급한 일은 낙태가 어떤 것인지 알리는 것...



영화 '언플랜드'

지난해 5월 11일 입양의 날이었다. 입양 관련 행사장에서 많은 입양가족들과 분주하게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락 목사님이 지나가는 나를 붙잡았다.

“오 대표, 잘 만났소. 여기 앉아서 이분들과 대화를 통역해주시요.”

얼떨결에 통역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영화 '언플랜드' 공동제작자로, 영화 수출 건

으로 방한했다고 했다. 영화 언플랜드는 미국 최대 낙태클리닉에서 일하던 한 상담사가 낙태클리닉의 충격적 실상을 목격하고 생명옹호론자로 돌아서게 된 과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미국에서 이 영화를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낙태찬성(프로초이스)에서 태아생명수호(프로라이프)로 돌아섰다고 한다. 미국의 9개 주에서는 낙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한다.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분들이 월요일에 귀국하니까 내일(주일) 장소만 섭외된다면 영화를 함께 보면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우리 집을 오픈하겠다고 하고, 주변의 몇 사람을 초대했다. 다음날 주일 저녁, 우리 집에 40여 명이 모였다.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기 위해 준비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플레이어가 영화 필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주일 밤 8시에 플레이어 구매하는 것도 어려웠다. 나는 손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으니 함께 영화를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제안했다. 그 자리에는 고아들을 대변하는 고아권익연대 대표도 있었고, 미혼모와 미혼부를 대표하는 분들도 있었다.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님도 계셨고, 입양가족 대표(온누리교회 입양 커뮤니티 '제이홈')인 나도 있었다. 각 단체들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도했다. 언플랜드 영화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상영되도록 뜨겁게 부르짖었다.

영화 언플랜드는 한국의 수입사와 미국의 제작사와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한국 상영이 계속 불발됐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에 CBS 기독교방송과 CGV 영화사와 함께 공동으로 영화수입을 진행했다. 그런데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되지 않았다. 점점 영화와 내가 멀어져만 갔다.

올해 7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대표들을 만났다. 정부가 내놓은 낙태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나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로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 활동을 하면서 생각했다.

‘낙태죄가 대한민국에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했다. 법보다 시급한 것은 낙태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낙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영화 언플랜드를 감상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

나는 다시 급하게 미국과 소통했고, 한 영화사에서 한국 수입권을 받아 영화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12월 17일 영화 언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정식개봉을 앞두고 있다.

지난주부터 사전 단체상영 예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신청 2주 만에 70여 곳에

서 영화 사전 상영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 국회의원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행해진 산아제한정책에 개신교 목사들은 낙태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지원해줄 수도 없으면서 나에게 낙태반대 법안을 내라고 부탁하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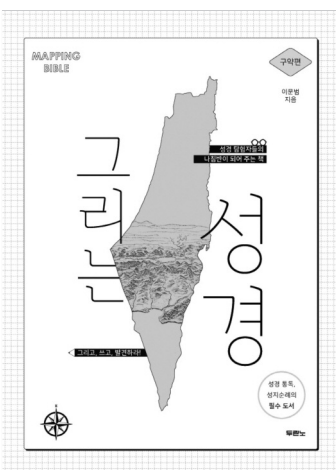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다.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영화 언플랜드를 감상하면 좋겠다. 대관을 해도 좋고, 12월 17일 개봉하면 봐도 된다.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대한민국에 만연했던 낙태를 함께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오창화 집사
(한강공동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영화 '언플랜드' 개봉 전 단체상영 신청방법
1. 단체관람 인원, 일시, 장소 결정 (최소 30명 이상, 관람일 3~4일 전 신청)
2. 배급팀 담당자와 자세한 사항 협의
3. 상영료 결제(사전결제, 당일결제 중 택일)
문의: 010-9228-3229

두란노 신간

그리고, 쓰고, 발견하라!


 <그리는 성경(구약편)>
이문범 저 | 두란노 | 22,000원

책 <그리는 성경(구약편)>의 저자 이문범 목사(사랑누리교회)는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성서지리 박사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성경의 많은 사건과 예언의 성취가 지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고 20여 년 동안 성경지리 사역에 헌신했다. 이 책을 유튜브 동영상(www.youtube.com/user/sheeper64)을 보면서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룹별 성경 공부, 순예배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책만 있으면 성경을 제대로 통독할 수 있다.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성경의 의도를 알 수도 있다. 성지순례의 기억을 되살리며 복습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게 될 성지순례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 책을 덮는 순간 누구나 성경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깊게 알게 된다. 이 모든 유익이 책 <그리는 성경(구약편)>에 녹아있다.

책 <그리는 성경(구약편)>은 지리와 성경을 연결하고 있다. 성경 구절과 핵심 키워드를 지도에 쓰고, 성경의 루트를 그려봄으로써 성경을 더욱 입체적으로 읽게 해준다. 이 책은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지도를 보며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역의 현장을 한 장의 지도에 옮겨 놓았다. 또한 성지순례에서 많이 방문하는 장소들을 소개하고,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과 성경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지도를 펼쳐두고 사역현장을 직접 그리고, 성경 구절을 직접 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하늘 문'

활을 높이 들어 깊이 그어
건반을 민첩히 두드려
가슴을 다듬어 입김을 다하여
음률의 떨림으로
색깔의 울림으로
넓고 넓은 경이의 나라
높고 높은 신비의 왕국
창과 문을 더듬어 댄다
그침 없이 두드려 댄다

두드려 내는 음색의 울림이
문질러 내는 음정의 흐름이
경이로운 바람을 일으켜
신비로운 구름을 띄워
천둥이 울려 주는 소리로
번개가 비쳐 주는 빛깔로
하늘 문을 홀연 열어 주리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황홀 안에 영원히 살게 되리

- 이원로 장로의 시선집 <감사와 공감> 중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학술포럼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그 현대적 의미’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학술포럼’이 지난 11월 26일(목)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 그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막 올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카이퍼가 믿고 실천했던 칼빈주의 신학을 재발견하고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인사했다. 정성구 박사(총신대 전 총장)는 “어떤 영역에서든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는 “모든 영역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정치기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했다. 박태현 교수(총신대)는 “교회와 국가는 서로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했고, 윤철호 교수(장신대)



기독교학술원과 온누리교회가 아브라함 카이퍼 서거 100주년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는 “예수님의 사회적 섬김의 영성을 회복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최용준 교수(한동대)는 “카이퍼의 주권 사상을 통해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고,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정치관에 대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처드 마우 교수(미국 풀러대 전 총장)는 “교회와 학교는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김도일 교수(장신대)는 “교회가 공적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강도 만난 자의 이웃 ‘NGO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1월 24일 오후 19시 세종호텔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NGO 더멋진세상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NGO 더멋진세상 대표 김광동 장로, 김창욱 사무총장, 선교사 등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 김광동 장로는 “앞으

로도 많은 성원과 관심, 후원과 중보기도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NGO 더멋진세상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는 질문 앞에서 있다”면서 “늘 지구촌 곳곳에서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기는 NGO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엔젤트리 사연 1,824개 연결 기다린다!

2020 엔젤트리 온라인 게시판에서 신청

엔젤트리 사연 게시 2주 만에 올해 접수된 사연 4,266건 중에서 2,423건이 연결됐다. 연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연은 1,824개다.

사회선교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2020 엔젤트리 오프라인 게시판’ 이용이 어

려워진 만큼 ‘2020 엔젤트리 온라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 엔젤트리 온라인 게시판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다.

문의: 02-3215-3558

010-6442-0191

대학청년부 ‘2020 사랑애틀’

12월 5일과 12일 청년 1천여 명 참여

대학청년부 ‘2020 사랑애틀’ 사역이 12월 5일과 12일 실시된다.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소속 청년 1천여 명이 서울 시내 불우이웃과 차상위계층 1천여 가구에 쌀과 반찬, 생필품 등을 전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한다. 올해 사랑애틀 사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실시한다. 햄살, 마스크, 라면, 삼푸세트, 주방용품, 칫솔지약세트 등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필품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다. 지난해 사랑애틀 사역에서는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청년 1,070명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 1천여 가구에 작은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달했다.

/ 홍하영 기자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대전 러빙유 전도집회

지난 11월 22일(주일) 대전 온누리교회에서 이웃초청예배 ‘러빙유 전도집회’를 개최했다. 전도대상자 49명이 참석해서 42명이 결신카드를 작성했다.

러빙유 전도집회에서 김상수 목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나님을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로 인정할 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게 된다”고 설교했다.

참석자 정병욱 형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면서 “앞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대전 온누리교회 ‘러빙유 전도집회’.

”고 고백했다. 참석자 김난경 자매는 “내가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기적 같다”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정혜선 성도는 “코로나19 시기가 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오해를 때문에 전도가 힘들었는데 전도대상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iWe(아이위) 참가자 모집

온누리교회 청년부 35~45세 형제자매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결혼을 위한 남녀매칭 프로그램 ‘iWe(아이위)’ 참가자를 모집한다. ‘iWe(아이위)’는 12월 12일(토) 온라인 오리엔테이션 실시하고, 3주 동안 프로그램을 이어간다. 비대면 그룹별 미팅 및 이벤트, 일대일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iWe(아이위)’ 참가대상은 온누리교회 청년부 35~45세 형제자매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메일로 이름과 연락처, 소속공동체를 전달하면 iWe(아이위) 참가 지원서를 보내준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및 참가신청:

cgkh0606@hanmail.net

두란노어머니학교 개설 신청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2021년 상반기 어머니학교’ 개설 신청을 받는다. 두란노어머니학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은 교회와 단체들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물품 및

개설 메뉴에 있는 ‘개설 신청하기’란을 클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일반 어머니학교’, ‘열린 어머니학교’, ‘특수 어머니학교’, ‘해외 어머니학교’ 등이 있다.

문의: 02-2182-9114

11월 세례자

■서빙고

안종호 900922
이경운 751209
이현지 961019
입교
이승민 021228
이재혁 010124
하인철 950626
허준일 941014

유아

공예담 180814
공승현 심은진
김영운 191206
김영선 김선희
김예나 181101
김충환 김아름
김에서 190605
김태주 조혜진
김예성 191119
김충환 김아름
김은율 200525
김연준 홍명화

김이안 181224
김준영 이지혜
김이안 180926
김상우 심효문
박시훈 200410
박진수 한현이
박지율 180911
박상욱 강연진
변재하 191109
변대섭 박주영
서예담 190114
서영민 김아람
송예은 200213
송승철 임영지
심은유 200209
심영훈 김유나
오하윤 190308
오형석 박인진
유서진 180818
유승우 김신혜
유하은 190816
유기성 이보람

이지호 190129
이재원 김지희
장지우 181224
장우식 최희정
장태하 190126
장재석 노진경
정현지 181129
정성인 표미연
조하은 190108
조현능 손혜정
주하은 190809
주장희 박혜윤

■양재

김경숙 730427
김준희 511008
이승철 641107
이하윤 871021
입교
박서현 050311
윤석희 940214
유아
고혜은 191008
고재현 이민정
권라운 181016
권 준 김경혜
김나희 190523
김태윤 최선옥
김다은 200302
김이삭 원현지
김예찬 191031
김대은 이지은
김하율 181211
김경환 조지영
김하준 180530
김현우 도경미

민예원 200514
민형진 박준미
박시우 181029
박동진 박선화
박주현 200304
박동욱 문예인
박하민 180717
박준홍 윤명랑

신유찬 190326
신윤철 권은주
양지호 180405
양정훈 이정은
어아진 180405
어규현 도현경
이소은 190227
이다빛 김수라
이수호 190620
이재훈 엄이정
이은찬 190928
이동호 김보희
이은호 180310
이상윤 이선민
이지호 180310
이상윤 이선민
정한나 181008
정진우 제진영
한비주 190712
한지성 고영화

길

입교
장재영 891212

하늘

오태경 980101
입교
이가는 940221
정우찬 990525
정채원 950128

SNS

경수현 860629
김현지 951215
유아
김리우 200418
김만기 유수현
안은재 200225
안지연

■대학청년부

세례 간증



/ 이현지 자매(하늘대학부)

초등학교 4학년 때 파도림을 당한 적이 있다. 한 학년이 지나갈 동안 나는 반의 왕따였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어른들에게 말씀드리면 친구들에게 더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터놓지 못했다.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졌고, 나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고 연기하듯 살아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아픔들을 보게 되었다. 조그만 일에도 화가 나고, 상처받는 나 자신을 보고 실망했다. 그런 내 마음을 고치고 싶었다. 시중의 책이나 치유와 관련된 콘텐츠를 찾아봤지만 세상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늘 생각했다. 정말이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이다.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해 여름 온누리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러다 성경을 펼쳐 마태복음을 읽으며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

“너희가 너희에게 죄지는 사람을 용서하면

치유 그리고 진정한 자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마 6:14-15).

이 말씀이 딱딱하게 굳은 내 마음을 깨뜨렸다. 고집과 가치관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데 집중했다. 하나님께 모든 상처와 죄악들을 털어놓으며 기도했다. 내가 품에 안겨있는 갇힌 아이처럼 느껴졌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확신만으로 마음이 녹아내렸다. 물 밑 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과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작년 가을, 온누리교회 치유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더 깊고 올바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치유하는 과정 중에 상처받았던 과거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드러내고, 당시 두려워했던 사람들과 스스로를 미워했던 나를 용서하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많이 치유되었다. 그러나 잠깐 한 눈을 팔면 다시 옛사람이 나와 넘어지곤 한다. 그래도 이제는 예전의 어두웠던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감사하다. 나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시고 한없는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온누리전도학교 수료 간증



/ 안태교 성도(강남C공동체)

전도의 작은 불씨를 피우다!

전도에 관심이 없던 나에게 다른 강좌에서 만난 한 자매가 전도학교 수업을 들어보라고 강하게 권유하여 마지못해 신청을 했다. 수업 시간도 다른 일정과 겹치고 과제도 많은 것 같아 부담스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하지만 첫날 장경문 장로님의 강의를 듣는 순간 뭔가 날아갈 듯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하고,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감이 생기고 강의가 재미있어지니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다.

전도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예전에 남동생과 율케를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마음먹었던 일이 생각났다.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내가 생각했던 방법을 합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라”는 강의 내용대로 남동생과 율케를 위해 기도하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주 만나는 못하지만 문자메시지를 많이 보냈다. 어느 날 “기도하라”는 내 말에 율케가 “언니, 저도 기도할 게 많아요” 라고 대답했다.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했다. 율케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고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많이 가까워졌음을 느

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 추도예배에서 남동생이 기도를 하는 기쁜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들의 코로나 감염 뉴스가 자주 보도되자 남동생이 “더 이상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마. 나는 기독교인들이 싫어”라고 말했다. 나는 인내하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남동생 가족들을 위해 조카들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가끔 눈치를 보며 기도의 중요성과 짝막한 간증 동영상 등을 보내며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이 본인이 너무 큰 죄인으로 느껴진다는 말을 길게 써 내려간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회개의 기도문이었다. 나는 감동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남동생이 기도하고 회개도 하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저의 기도와 노력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곧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남동생과 율케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님께서 남동생 가정을 만져 주시리라 믿는다.

마지못해 등록했던 전도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전도의 작은 불씨를 피우게 되었다. 이제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날마다 111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다.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주혜윤 성도(분당A공동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지난 8월 모 방송에서 광화문집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부 교회 때문에 못매를 맞는 일이 서러웠다. 보도 끝에 한 기자가 “기독교인들은 공통과 사람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도했다. 마치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 몰상식하다는 식으로 비판했다. 듣기 거부하면서 동시에 내가 창조론에 대해 딱히 알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평소 과학을 잘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해서 알려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그래서 창조신앙아카데미에 끌렸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둘째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고, 꿈이 과학자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크고 놀라운 것들을 감탄하며 공부하기를 소망하며 한 강의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들었다.

1주 강의 주제는 공룡이었다. 강의내용이

흥미롭고 반가웠다. 2주 강의에서는 세포 속 DNA나 단백질의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설명하면서 지적설계자 없이 우연으로 만들어질 수 없음을 역설한 내용이 기억에 남았다. 3주 강의에서는 다양한 인종이 한 조상으로부터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주 강의에서는 지구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법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과 과학 역시 비과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유신진화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나 역시 창조신앙아카데미 강의를 듣지 않았다면 동의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하고 착실하게 읽어야겠다고 다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현상과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연구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이해가 안 되면 치열하게 이해해보려는 노력 대신 ‘하나님이 하셨다잖아’라며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질문하고 답을 듣는 삶을 살고 싶다.

부모맞춤전도 ‘행복드림콘서트’ 세례 간증

오늘은 참 좋은 날

내 나이 여든 83세. 사는 동안 그렇게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오늘은 참 좋은 날로 기억이 될 것이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후회가 물밀 듯이 밀려온다. 젊었을 땐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산 것 같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통해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나에게 세례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

아들이 처음 교회에 나갈 때 그렇게 못 가게

말리고 야단을 쳤다. 그런데도 아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녔고, 부모를 잘 공경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회에서 준비한 좋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아들의 권유를 따라 나도 사는 동안 하나님만 잘 섬기도록 하겠다. 이 시간을 준비하신 분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그분들께도 감사드리다.

/ 김성택 성도

세례 소회(所懷)

몇 년 전, 수능시험을 치르는 옆집 고3 학생에게 격려의 뜻으로 찰떡 한 떡을 선물한 적이 있다. 그 학생이 지금 대학생이 되었다. 만 날 때마다 안부를 주고받고 있다.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면 이 세상은 풍요롭고 화기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저 가을 낙엽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이 내생(來生)에서 집사람을 만나 동행하

는 길은 ‘세례’를 받으므로 가능하다고 느꼈다.

자기희생적 사랑을 보여준 예수님같이 모든 사람에게 자리아타(自利利他; 스스로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다)로 살아가도록,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도록, 온고지신(溫故知新; 옛 것을 통해 새것을 앎)의 내일이 되도록, 노력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한다.

/ 최서규 성도

권사칼럼

더 진한 인생의 절정기



장안녀 권사
(부천 온누리교회)

나의 방패 같았던 어머니가 인지능력이 떨어지셔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가족들을 놀라게 하신다.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 되니 딸들이 밤샘하며 돌봐드려도, 날이 새면 쉴 틈을 안 주시고 어린 아이처럼 보채신다. 참고 견디다 지치면 짜증을 내고, 아이 같은 행동에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짧은 글을 쓰는 동안에도 열 번도 더 부르신다. 그래도 뒤돌아서면 안쓰러운 우리 엄마다. 직장에 가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오고 싶게 만드는 분이시다. 여동생도 똑같다고 했다. 동생이 당번인 날은 잠도 못자고 힘들게 엄마를 돌봐드리고 간다. 그런데 돌아서는 길에 바로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딸들은 효녀인 것 같지?”라고 한다. 나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효녀가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 거야.”

나는 이 말을 하고 며칠 동안 하나님과 나,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곤 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주셨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끈끈한 사랑에 대해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고백했지만, 깊이 깨닫지 못했던 기간이 참 길었던 것 같다.

나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다. 내가 하고 싶고,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엄마였다고 생각한다. 요즘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 되새김질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녀들에게 어느 어미 못지않게 사랑을 주셨는데도 더 잘해 주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엄마였는데 지금은 나의 일상의 평온함을 보류시키고 계신다. 너무 힘들 때는 휠체어를 밀며 기도한다.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속으로 반복해서 외친다.

엄마는 내 건강을 위한 선배시다. 엄마가 대장암 치료를 받으시고 몇 개월 지나 나도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 엄마를 통해 병에 대한 사전 지식이 충분했기에 투병 중에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견딜 수 있었다. 식단으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엄마 덕분에 나는 엄마보다 20여년 먼저 식단관리를 통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자식 사랑이 깊은 엄마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 내가 놓칠 뻔 했던 것들을 정리해 주시도록 허락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아동원 목사님 아드님 인생의 절정기가 대장암 투병 기간이었다는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나도 내 인생의 절정기가 인기를 유지하며 강단을 무대 삼아 수학을 가르치며 열심히 강의했던 30~40대가 아니라, 50대 초반 직장암 투병 기간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더 진한 인생의 절정기를 맞이했다. 내가 항암치료를 받을 때는 다음 일에 대한 계획도 염려도 없이 잠을 잘 수 있었다. 재워달라고 보채시며 밤새 안 주무셨던 엄마를 돌봐드릴 때가 내가 항암치료 받을 때보다 힘들었다. 그러나 깊고 진한 사랑을 배웠다. 엄마를 보듬고 등을 어루만지며 주무시라고 달래면서 야기 때 나를 재우시며 보듬어 주셨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곤 한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MRI도 찍을 수 없어서 허리가 골절된 채 2~3주 고통을 호소하시던 엄마가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으셨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심정으로 보냈던 긴 시간이 지나가고 오늘은 휠체어 없이 걸으셨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날 동안 짜증은 줄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게 하소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

변화의 시간



조요한, 박사랑
선교사
(중앙아시아 E국)

요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감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변화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여름 이후 두 달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우리 가족이 살던 아파트를 떠나 마당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밖에 나가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고, 현지인 친구들과 소모임을 하며 현지 언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겹치면서 아파트가 좁아서 어려웠던 것도 또다른 이유였다. 한 국에서도 이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선교지에서는 더욱 힘들었다. 한국은 이삿짐 센터에서 대부분 알아서 해주지만,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일일이 짐을 싸고, 옮기고, 다시 정리하는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보통일이 아니다. 급기야 무리를 했는지 이사 후에 요한 선교사의 몸이 좋지 않아서 지금도 회복 중이다. 생활하기 편한 아파트에 비해 새로 이사한 집은 춥고 불편한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사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의 사역방향에 대해서 계속 손 모으고 있었다. 동역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교회 개척을 위해 애쓰

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었는데, 우리만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타 단체 선생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함께 교회개척을 시작하게 되었다.

타 단체 선생님께서는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하셨다.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예배 모임을 하고, 주일 예배는 현지 청년이 인도하고, 내가 반주자로 섬기고 있다. 이 외에도 소그룹 모임이 이뤄지는데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되어 우리 집에서도 모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이곳에서 더 많은 모임과 만남이 이뤄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지난 10월에는 세례식이 있었다. 이곳 교회 공동체에서는 침례를 주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면 세례받는 성도들이 힘들어한다. 10월 초였는데도 찬물에 들어갔다 나온 성도들이 추위에 벌벌 떨었다. 하지만 세례를 주는 일은 정말 신나고 기뻐다. 세례를 받은 친구들도, 이곳에서 첫 세례식을 경험한 우리도 감동하고 들뜬 마음이었다. 보안과 코로나19 상황에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 염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잘 마치고, 축하를 나누었다.

다음 달 초에는 교제하던 이들을 모아서 초청잔치를 하는데 나와 교제하고 있는 M자매를 초대하려고 한다. 초청잔치에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복음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게 되는데 그 시간에 M자매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한 치도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안에 있기에 오늘도 이 길을 담담히 걸어간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것을 믿는다.

신앙에세이



조동욱 목사
(분당B공동체)

6년 동안 실버타운에 있는 교회를 담당한 적이 있다. 그 교회 예배 출석 인원은 80명가량이 었다. 평균 나이는 86세였다. 대부분 1세대 신앙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예배 열기가 여느 청년부 예배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곧 맞이할 천국 앞에서 드리는 예배여서 그런지 설교할 때마다 “아멘!”이라는 화답이 늘 예배당에 울려 퍼졌다. 그분들을 섬기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바로 ‘눈물 젖은 밥’이다.

소천하신 한 권사님이 기억에 남는다. 그분의 연세는 93세였다. 그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

고 내가 교회 현관에서 인사할 때면 그날 설교 중에서 깨달은 내용을 말씀하시곤 하셨다.

“목사님, 잊은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났어요. 오늘 그 친구에게 전화하고 전도를 해야겠어요.”

그 권사님은 유쾌하고 인기가 많은 분이셨다. 어르신들이 둘러앉은 자리에 가면 그 권사님은 항상 연예인이셨다. 권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동그런 소파에 둘러앉은 어르신들이 마치 TV를 시청하듯 깔깔거렸다. 언제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 권사님은 그렇게 밝고 유쾌한 분이셨지만 건강만큼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93세라는 나이도 나이지만, 암과 함께 먹고 자며 살고 계셨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그 권사님은 실버타운에 들어오신지 6개월 만에 하나님 앞으로 가셨다. 장례예배는 그 권사님 자녀들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드렸다. 그 권사님 천

국가는 길을 배움하기 위해 그 교회를 방문했다. 권사님 영정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유가족들이 따라 나오면서 “어머니께 이야기 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속으로 ‘얼마나 내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면 유가족들이 나를 알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마운 마음으로 유가족들과 인사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막내 따님이 나에게 식사를 하고 가라고 권했다. 혼자 식사하기가 부담스러워 주춤하는 사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한마디를 덧붙이셨다.

“어머니가 대접하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다. 자리에 앉아 차려진 반찬을 보는데 따님의 그 말 한마디가 갇가를 땀물었다.

“마지막 식사입니다.” 수저에 흰 밥을 얹어 첫술을 뜨는 동안 내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권사님이

대접해주시는 마지막 식사가 눈물 젖은 밥이 되었다. 그 눈물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감동을 주는 듯했다. 가끔 그때의 눈물이 생각나곤 한다. 93세의 고령, 암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 이름만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시고 담대하셨던 그 권사님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걷기 힘든 날이 올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질병과 함께 사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병에게 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팡이 삼아 믿음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말씀의 감동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다.

밝게 웃으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신 권사님의 삶이 어찌면 비대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눈물 젖은 밥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

“그러고 나서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22절).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레위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29절).

분노 뒤에 있는 깊은 기도

느헤미야는 계속 개혁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을 책망하며 개혁을 일으키지만,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본인이 분노하는 기준으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을 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분노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으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합당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자신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그 기준에 해당한다면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소서.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는 자신도 이 기준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을 안다는 겸손인 것입니다.

둘째, 느헤미야가 악과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 고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갱신과 개혁을 이룬다는 것은 때로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거룩한 열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때로 사람들에게 호의적으로 대접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목회자이자 교육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루었던 개혁 때문에 당시 국가 교회지도자들에게는 ‘카이퍼에 대한 공포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국립 교회, 국가 교회지도자들은 매우 옳지 않은 방향, 형식적이고 건조하고 무의미한 세속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퍼가 그것을 갱신하려고 노력했을 때 모든 것을 압박했습니다. 마치 마틴 루터가 올바른 진리를 드러냈을 때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엄청난 압박을 받았던 것처럼 개혁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고 불법적이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습니다.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집에 돌을 던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카이퍼와 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돌레안치(애통)’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통탄하며 올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슬퍼하면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수백 개 교회에 감동과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국가 교회에서 독립한 네덜란드 개혁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혁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교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카이퍼가 수상이 되었을 때는 부당한 파업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등교육법을 제정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인본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학문으로 물들어버린 시대에 자유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자유대학교는 학위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인정해 주는 것

이 고등교육법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니다. 엄청난 반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싸웠습니다. 카이퍼가 그 싸움 과정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정부에 관련된 문제들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에 대항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에 대적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회 전반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 있는 죄와 악과 싸우는 느헤미야와 카이퍼의 믿음과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행동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 기도로 끝납니다.

“하나님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31b).

느헤미야가 자신의 의와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알려드리는 자녀의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또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가 연상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위기는 거룩한 열심을 품은 성도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옳고 그름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이 여론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론조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시대에 느헤미야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분별하고, 이 땅 위에서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 분노 뒤에는 반드시 느헤미야의 깊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저버리는 백성들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멈추지 않는 거룩한 열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전도클리닉 5

복음 전도자의 자격과 준비 그리고 실천

복음 전도자의 기본 자격이 무엇일까?

첫째, 참된 회심과 거듭남을 체험하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회심자는 자신의 간증과 구주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롬 12:2),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천국 소망을 품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은 그의 마음에 품은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묻게 된다(벧전 3:15). 이때 분명히 복음을 전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준비기간을 가지셨고(눅 3:23),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전도훈련을 차근차근 배우며 준비했다.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첫째, 세례받고 복음적인 교회에 소속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모든 회심자들이 순종할 필수 사항이다(마 28:19).

둘째, 자신의 간증을 글과 말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벧전 3:15). 회심 간증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쉽고 강력하게 전달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전도방법이다.

셋째,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관계회복 및 신뢰 관계가 깊어지도록 기도하며 노력한다. 노방전도도 필요하지만,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삶과 간증으로 전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천국 복음을 자세히 배우고 그 뜻과 능력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벧전 3:15). 천국 복음을 자세히 배우는 훈련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나 훈련된 전도자는 대상자의 상황과 문화, 세계관에 적합한 용어와 전달 방법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대상자(불신자)를 깊이 알고, 수신자 중심 복음전달 방법을 배운다. 전도자는 불신자를 깊이 알기 위해 그들의 상황, 문화, 종교,

세계관을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복음 전도의 의미를 알고 다양한 방법을 배운다. 한 가지 전도방법을 배우고 실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불신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와 복음전달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적합한 전도성경공부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복음을 분명하고 차근차근 전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준비된 복음 전도자들은 회심과 세계관 변화에 목표를 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전도자는 천국 복음을 충실히 그리고 차근차근 전해야 한다(고전 3:6-7). 전도자는 타종교와 타세계관을 혼합적으로 믿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합한 용어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회심 과정과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회심의 본질인 죄, 우상을 버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행 3:19).

또한 전도자는 회심자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적인 교회에 소속되고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전도자는 회심자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그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전도자가 직접 양육과 전도훈련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훈련된 영적 리더에게 연결하도록 한다.

복음은 헌신 된 전도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동시에 다음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꾸준히 전파될 것이다.(골)

목상: 복음 전도자의 자격, 준비, 실천에 관해 새롭게 깨닫거나 적용할 점이 무엇인가?



조윤희 선교사
(GMTC(한국선교훈련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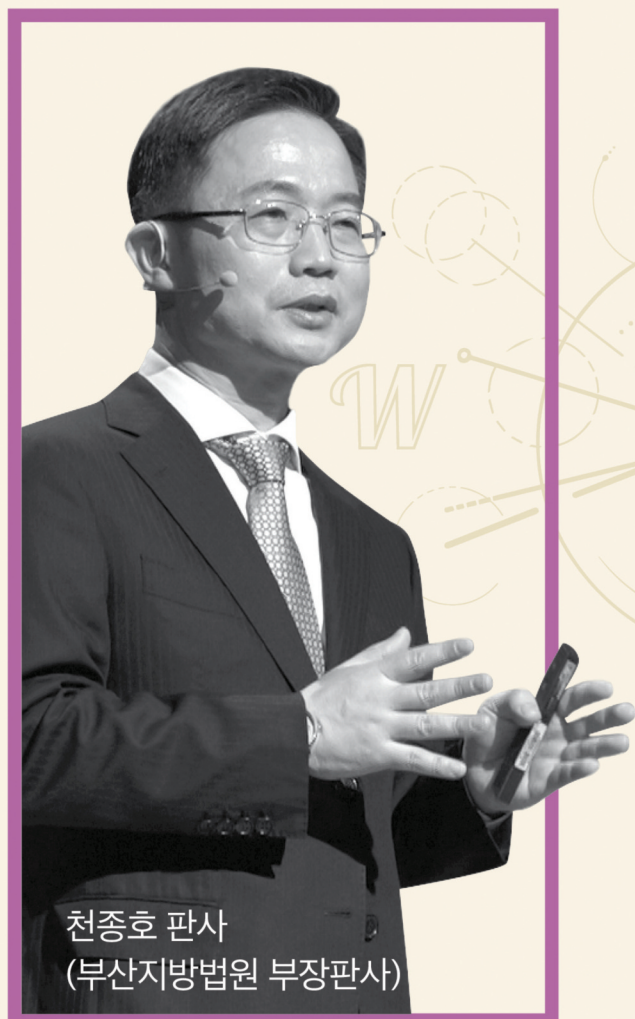


나침반

맞춤 특강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다음세대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매주 월, 화 오전 8시 20분 방송



천종호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1월 30일, 12월 1일

호통판사 천종호 판사가 들려주는
청소년 비행의 이유와 교회 공동체의 역할



최민준 대표
(자라다교육 대표)

12월 7일, 12월 8일

자녀교육 전문가 최민준 대표가 나누는
화내지 않고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방법

교육특집
교육, 혁신을
꿈꾸다!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



CGNTV 유튜브 채널